



보도시점 2023. 7. 19.(수) 06:00
7. 19.(수) 석간

배포 2023. 7. 18.(화) 16:00

농식품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복구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

- 7월 18일 06시 현재, 농경지 3만 ha 침수, 가축 69만 마리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신속 복구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9일(수) 오전, 정부 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7월 18일 06시 현재 3만 1천여 ha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되었고, 35ha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며, 69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함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2023. 7. 19.(수) 10:00~10:3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대회의실
- 참석자
 - (농식품부) 차관(주재), 유통소비정책관,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관, 원예산업과장(간사)
 - (유관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농협 산지도매본부장, 농업농촌지원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도매시장법인 및 대형마트 관계자
- 주요내용 : 주요 농축산물 집중호우 피해, 수급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에 피해가 큰 상황이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이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의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될 경우 고랭지 배추·무의 병해 및 가축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추 등 시설�채소의 경우 피해 미발생 지역 및 대체소비 가능한 품목의 출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하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신속한 재파종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 장마철 이후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산지 농업기술 센터, 농협 등과 협업하여 적기 방제를 지도하는 한편, 수급 불안시 정부 비축 물량(배추 1만 톤, 무 6천 톤)을 적기에 방출한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닭고기의 공급량 확대를 위해 종란 수입, 계열업체 추가 입식을 지원하는 한편, 8월까지 할당관세(3만 톤) 물량을 전량 도입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등을 7월 20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로 20~30% 할인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앞으로도 한동안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한편, 수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수급 불안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원상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044-201-2234)

